

# 금융시장 다시 '패닉 상태'

미국 구제금융법안 통과 불구

환율 폭등세 ... 공포감 확산

미국 구제금융법안의 의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공황(패닉) 상태에 빠졌다.

환율은 전장 없이 폭등하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공포감이 형성되고 있고 주가는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다.

◇ 1,300원 목전 ... 시계 '제로', 폭등은 위기 =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단기 과열(오버 슈팅) 현상으로 1,300원도 훌쩍 넘어서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구제금융 안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급등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외화 유동성 부족 현상이 해소되더라도 실물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패닉에 따른 환율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계속 내비쳐줄 경우 우리나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인개증시, 1,300도 보장 못해 = 경기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증시도 최소한 올해까지는 부분적인 반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저점은 탐색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에나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 1300까지 급락 우려

금융 불안 실물경제 큰 타격

불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능력에 대한 의구심, 외국인의 증시 이탈 등이 겹치면서 외화자금이 둘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내에 분위기가 개선되기는 어렵고 내년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금융불안 실물에 타격 = 금융 불안은 곧바로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발 금융 불안으로 선진국의 경기가 헤들리면 이는 곧바로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내수를 더욱 짓누르고 물가를 한층 끌어올린다. 주가 하락은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정부도 실물에 문제를 생기고 있음을 인정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로 퍼져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예측기관들은 내년도 경기가 3%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회복 시점도 끝없이 지연되는 'L'자형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득 연 5억

2천명 넘어섰다

금융소득 만으로 5억원을 넘게 버는 사람이 지난 2006년 2천명을 넘고 이들의 금융소득 합계는 3조5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귀속 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체 인원은 3만5천924명, 이들의 금융 소득은 총 6조8천6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인원은 2천105명으로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5.86%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금융소득은 3조5천16억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의 51.05%나 됐다.

/연합뉴스



6일 '2008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 전시장 내 보해양조 부스를 찾은 방문객이 보해제품을 시음하고 있다. 보해양조(대표 임건우)는 6~9일 서울시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여, 일생주·복분자주·매취순 등 무료 시음행사를 펼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지역 주식투자 '활기'

8월 중 ... 고가 종목 매매 치중

거래량 23% · 거래대금 37%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증시 불안 속에서도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투자는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전남의 주식거래량은 4억8천101만주로, 전달보다 22.9% (8천 983만주)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거래 대금은 2조2천870억원으로 한 달새 36.6% (6천130억원) 늘었다.

광주·전남의 주식거래 증가는 지난달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고가 종목에 대한 거래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미국 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한 달 새 각각 1.78% (-26.18P), 6.27% (-29.51P) 떨어졌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달 광주·전남의 주식 거래량 및 대금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7%, 1.37%에 그쳤다.

이는 ▲부산·경남(3.44%, 2.93%) ▲대구·경북(2.91%, 2.21%) ▲대전·충남(1.86%, 1.43%) 등을 밑도는 수준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기름값 세금 비중 낮아졌다

휘발유 50% → 39%, 경유 40% → 27%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비중은 40% 아래로, 경유에 붙는 세금비중은 30% 밑으로 각각 떨어졌다.

6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올해 2분기 이후 1ℓ 당 670.24원으로 9월 3주차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소비자 가격의 38.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05년 3분기까지 50%를 넘었으나 이후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유

류세는 소폭 내리면서 2006년 3분기 48.6%, 2007년 3분기 48.2%였다가 올해 2분기 37.2%로 큰 폭 하락했다.

경유의 경우 2003년 이후 소비자 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이 40% 안팎을 보이다가 상대적으로 유류세를 높이면서 작년 3분기에는 41.2%로 올랐으며 올해 2분기에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27.0%, 9월 3주차에는 28.2% 등으로 낮아졌다.

한편 OECD 평균은 휘발유가 52%, 경유가 43% 수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세금비중이 낮은 나라에 속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센트럴관광호텔	[웨이축레스·웨이디]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8	062-383-7575
더비디샵	데비디샵 매장관리/판매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8	062-366-8866
(주)후로넷	[주5일] SK 텔레콤 서부사옥(광주) 일반사무직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0/09	011-299-7000
덕문기계정밀	머시닝센터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1년	2400~2600	10/10	062-951-0737
정수기종이미트광주점	일반사무 및 경리 업무 담당 여성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1	062-374-8035
(주)리비트	주간비트 사무직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941-6452
홍국쌍용화재	[주5일근무/내근직] 본사직영 남부 TM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410-1416
(재)한국경제연구소	학술연구팀/공사원기팀/물가변동팀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573-3500
백일디자인	액 디자이너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676-0129
K.T.C	SKT 번호이동상담업무 정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62-716-0142
AIG생명(본사)	[AIG본사-광주센터] 하이브리드(복합TM) 상담원-월령500만	고졸/경력무관	5000~6000	10/14	02-3453-6623
헤스티아메스텍	피부관리실/병원의 코스메틱 판매직, 교육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5	062-434-5110
신가슴이엔지	건축소방설계 감리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15	062-655-7119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 환율 폭등 ... 정부 긴박한 대처

외환 보유액 안전한 수준 유지

은행권 유동성 확보 강력 주문

정부는 6일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70원을 오르내리는 등 극심한 불안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인데도 민간의 지나친 우려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기획재정부는 외환보유액이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는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주제하면서 "유동성 공급과 관련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은행은 우대하고 도덕적해이(모랄 해저드)가 나타나는 은행에 대해서는 폐널티금리를 통해 엄격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외환보유액 활용해 은행의 외화유동성을 적극 지원(back-up)하고 스와프시장에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국책은행들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해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책은행 민영화는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과정에서 외자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자구노력 시급하다" = 최근의 국내 금융 시장 상황은 민간에서 지나치게 우려한 측면이 있으므로 민간 차원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은행권의 달러 부족은 국가 간 통화가 거래되는 국제외화시장과는 차별화되는 공간이지만 은행들의 달러 가뭄현상은 심리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은행장들에게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 조기 매각, 대기업 외화예금 국내 유치 등에 은행장들이 발벗고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 "외환보유액·외화유동성 충분하다" = 재정부는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에 대해 단일화된 지표는 없으나 IMF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판단할 경우 현재의 외환보유액 2천397억 달러는 기준액 1천 41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국제신용 평가기관들도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나라 빚 317조 ... 한해 이자만 13조

2000년 이후 3배 가까이 늘어 ... 국민 상환 부담 '눈덩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3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지급한 이자만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예산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17조1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2.7%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111조4천억원(19.2%)과 비교하면 2.66배로 집계됐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국채이자+차입금이자) 부담도 급격히 커져 지난해 이자로 지출한 금액은 13조원에 달했다.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률은 2000년 7조5천억원에서 2001년 8조4천억원, 2002년 7조원, 2003년 7조원, 2004년 9조원, 2005년 10조원, 2006년 12조원, 2007년 13조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 7개월 동안 유출된 산업기술 151건

을 부문별로 보면 전자 직원에 의한 유출이 83건, 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43건으로 기술 유출의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또 올해 들어 7월까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27건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끝난 2건의 피해 예상액은 1조원으로 추정됐다.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예상금액도 2003년 13조9천억원에서 20